

# 젊어지는 샘물

글 | 차진나

그림 | 조예원

글 | 차진나

그림 | 조예원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옛날 옛적에 금강산 깊고 깊은 곳에 마음씨 고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포로로롱 포로로롱”  
“이렇게 아름다운 새소리는  
처음 들어! 도대체 무슨 새일까?”  
할아버지는 새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마침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파란 깃털에  
꽂지는 무지개 색인 아주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새는  
할아버지를 보자 인사를 하듯  
포로롱 울고서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새가 앉아 있던 나무 아래에는 아주 맑고 깨끗한 샘이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샘물은 아주 달고 시원했습니다.



삼물을 한 모금 마시니 굵었던  
허리가 꼳꼳해졌습니다. 삼물을  
두 모금 마시니 쿡쿡 쑤셨던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삼물을 세 모금  
마시니 얼굴 주름이 펴지고  
하얗던 머리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니, 이 젊어이는 누구야?” 할아버지는 자신이 젊어진 것을 깨닫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호리병에 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영감! 어떻게 그렇게 젊어졌수?”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해 주고, 샘물이 든 호리병도 주었습니다.





호리병에 들어 있는 샘물은  
여전히 달고 시원했습니다.  
샘물을 마신 할머니도 역시  
신기하게 힘이 솟아나며  
젊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졸랐습니다. 착한 할아버지는 샘물로 가는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샘에 가 보니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혼자 울고 있는 아기만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아기가  
되어 버린 것이었지요.



“아이고, 저런! 아기가 되어 버렸네!”

“이 아기는 우리가 잘 돌봐 줍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데려와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젊어지는 샘플”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